

믿음, 정의, 그리고 달리트의 존엄을 위한 투쟁

프리얀카 사미 (Priyanka Samy)

인도 달리트 인권운동가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는 지금 불의로 말미암아 혼란스럽고 위험한 세상 속에 모였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은 더욱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민주적 가치들은 무너지고 있으며,
인권을 위해 싸우는 이들은 외면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인간의 탐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결코 정상이라 불릴 수 없는 것을 '정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탐욕을 가지고 행하며, 공황이 무시되어지는 세상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처럼 깊은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이번 총회는 단순한 의례적 모임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모임은 경고이자, 동시에 용기를 향한 부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오늘의 시대 속에서 자신이 지닌 소명을 새롭게 정립하고,
공적 삶 속에서 예언자적 역할을 회복하며,
세상이 억압하는 이들과 두려움 없이 나란히 서야 한다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공황, 그리고 용기에 뿌리내린 공동체로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인도의 달리트 운동가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깊은 억압의 상황 속에서 목소리를 내는 이 중 한 사람으로서 말하고자 합니다.

카스트 제도, 2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이 체계는
누가 존엄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박탈당해야 하는지를 규정해 왔습니다.
달리트들은 한때 “불가촉천민”, “부정한 자”, “오염된 자” 로 불리며
사회 질서의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남아시아와 그 디아스포라 전체에서 달리트는 2억 7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달리트 여성들은 카스트, 계급, 성별의 교차점에 놓여
폭력과 차별, 그리고 배제의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비록 인도의 헌법이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카스트는 여전히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 수 있는지,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의 손길이 '깨끗하다' 여겨지는지—
그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카스트는 단순한 사회·문화적 관습이 아닙니다.
누가 토지를 소유하고, 누가 제도를 운영하며,
결정의 자리에 누가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는지를 정하는 정치·경제적 체계입니다.

국경을 넘어선 카스트

카스트 차별은 국경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남아시아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이주함에 따라, 그 위계 질서는 대륙을 넘어 확산되었습니다. 오늘날 카스트는 다국적 기업, 대학,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인종차별과 마찬가지로, 카스트 역시 '순수함'과 '우월함'이라는 신화 위에 서 있습니다. 두 체계 모두 인간성을 박탈하고, 배제하며, 특권을 지속시킵니다. 달릿 운동과 흑인 인권 운동은 오래전부터 카스트주의와 인종차별을 연결지며, 우리의 도덕적 상상력의 탈식민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교회에 인종, 민족, 성별과 함께 카스트 기반 차별을 모든 공식 문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름 붙여지지 않은 것은, 끝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카스트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게 직면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교회조차도 카스트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남아시아 전역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카스트는 여전히 사회적 관계, 결혼, 리더십, 그리고 권력 접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위 카스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강단에서부터 교구위원회, 신학교, 후원 기관에 이르기까지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달릿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리되고, 소외되며, 동등하게 그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로의 개종조차 우리 달릿을 완전히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많은 달릿들이 불가촉천민이라는 낙인을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믿음과 그들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카스트 정체성은 세례 이후에도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단에서 설교하는 대신, 의자를 닦고 청소하는 위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례보다 카스트가 앞선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입니까?

카스트에 침묵하는 교회는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안의 위계를 용인하는 교회는 결코 이 세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달릿 청년과 그들의 삶의 현실

이제 우리의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이들, 달릿 청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달릿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들 중 하나입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묵살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책(affirmative action)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편견, 교실과 대학 안의 배제 등의 차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달리 학생들은 조롱과 사회적 고립, 제도적 무관심을 견뎌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제도적 살인***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캠퍼스 안에 깊이 뿌리내린 구조적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과 공공고용에서의 차별 시정 정책은 오히려 상위 카스트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성공하려는 달리 청년들에게는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왔습니다.

사회적인 인맥과 발판이 없는 달리 청년들은 이미 불리한 위치에서 노동시장에 들어가게 합니다.

직장에서도 차별은 여전히입니다 — 채용, 임금, 승진, 직장 문화 전반에 걸쳐서입니다.

정부가 달리 창업 지원이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더라도, 이런 정책은 절대적인 예산 부족, 부실한 집행, 그리고 차별로 인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정책이 달리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과 제도는 카스트의 현실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젊은 달리는 지켜지지 않는 약속과 제도적인 장벽 사이에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차별을 시정하는 정책을 넘어선 실제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 멘토십, 그들이 이용 할수 있는 금융서비스, 리더십 양성 등 실질적인 기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이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청년들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위한 운동을 하고, 존엄을 되찾는 예술활동을 하며, 카스트·성별·인종을 초월한 결속을 만들어 갑니다.

그들의 믿음은 수동적 신앙이 아니라, 큰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혁명적 희망입니다.

세계적 차원의 카스트와 권력의 교차점

카스트는 남아시아 전역에 많이 있으며, 그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들을 손으로 청소하게하며, 종교 의식이란 이름으로 여성들을 착취하며, 그리고 면접에서 통과하지 않게 배제하는 등 카스트는 여전히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관습이 아니라, 시장·관료제·정치권력의 틀 속에 깊이 새겨진 권력의 모습입니다.

한때 우물에서 누가 물을 길 수 있는지를 결정했던 것처럼, 이제는 누가 자본·기술·리더십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주를 통해 카스트는 남아시아 사람들과 함께 국경을 넘어서 확산되었습니다.

인종차별과 카스트차별은 여러가지 면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두 체계 모두 인간의 가치를 계층으로 나누며, 침묵 속에서 생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릿 운동은 전 세계의 반(反)인종차별 운동과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해방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카스트 기반을 여전히 배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종을 하더라도 카스트를 지워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스트는 새로운 형태로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교회 안의 달릿들은 여전히 사회생활에서 분리되고, 리더십 참여가 제한되며, 목회를 하기에다 장벽이 있습니다.

반면 상위 카스트 출신 신자들은 여전히 종교기관뿐 아니라 자선단체, 정부, 기업에서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달릿 인권운동가들과 신학자들은 지역 교회와 세계 교회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

카스트를 인종, 성별, 민족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도덕적인 과제' 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교회 헌장과 문서 속에서 카스트 기반 차별을 확실하게 폐지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정하지 않고는 결코 해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교회를 향한 부름

오늘날 전례 없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시대 속에서, 교회는 사랑을 넘어서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통합으로 나아가 갈 시대의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교회의 지역 봉사뿐 아니라,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 — 심지어 교회 내부의 제도까지도 — 없애려는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5년에서 7년의 기간 동안, 저는 전 세계 교회들이 다음의 과제들에 헌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카스트 기반 차별과 모든 위계적인 구조의 부정

카스트를 도덕적·구조적 문제로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의 정의, 평등, 포용의 모든 틀 안에 카스트를 분석해야 합니다.

교회는 카스트 인식 교육, 진실 증언, 제도적 감사를 통해 모든 운영 단계에서 체계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달릿 청년 리더십과 집단적 주체성 강화

형식적 대표성을 넘어, 달릿 및 소외된 청년들 — 특히 여성과 젠더 다양성을 가진 청년들 — 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신학, 거버넌스, 사회정의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리더십 개발, 교육 펠로우십, 멘토십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3. 신학 및 신앙 기반 교육의 재구상

신학 교육 과정 속에 카스트, 성별, 인종, 계급, 장애, 성적체성 등 교차적 분석을 해야 합니다.

달릿 및 신학자들의 연구를 권장함으로써, 신학적 지식이 하나님의 백성의 다양성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청년을 위한 경제적·디지털 정의 강화

교회와 에큐메니컬 단체들이 경제 정의, 디지털 불평등, 양질의 일자리와 같은 청년 세대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들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달릿 청년들이 기술, 자본, 역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새로운 경제 환경 속에서 존엄과 안정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5. 종교 간 및 초국적 연대운동 촉진

기독교뿐 아니라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들과 세속적인 사회정의 운동이 연대하여 카스트차별, 인종차별, 가부장제라는 공통의 억압적인 구조에 맞서야 합니다.

교회는 평화, 다원주의, 인권과 존엄의 보전을 위해 헌신하는 곳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6. 교회 내 책임성과 치유의 사역을 함

포용성과 정의 실천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독립적인 검토,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교회 내에서 과거로부터 소외된 공동체를 위한 **보상적 조치 (reparative action)**가 필요합니다.

책임성은 실천하는 신앙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7. 교회의 예언자적 소명 회복

교회의 도덕적 힘은 중립적인 자리에 있지 않으며, 명확한 자세에 있습니다.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니푸르(Manipur), 팔레스타인, 수단, 콩고, 그리고 남아시아의 달릿 마을들까지 — 인권과 존엄이 짓밟히는 바로 그곳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오늘날의 체제들에 의해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서는 것을 의미하며,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확고한 신념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존귀하게 여겨지는 세상을 함께 세워갑시다.

감사합니다.